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912.95 (+60.37)		801.94 (-38.9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54 (+0.043)		1386.70 (+0.20)



한성숙·김민석·강훈식 '함께'
한성숙(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연속인상 vs 숨 고르기 한은, 기준금리 '딜레마'

금통위, 오는 27일 결정
성장-인상, 환율-동결 기조 엇갈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연2.75%에서 더 올릴 지를 결정한다. 지난 7월 전원일치 인상된 신현송 총재가 제시한 점검표를 보면 성장·수출과 가계부채는 추가 인상을, 환율은 속도조절을 가라키고 물가는 겉과 속이 엇갈려, 핵심은 인상 기조의 지속 여부보다 두 달 연속 올릴지에 모인다.

◆ 성장·가계빚, 예상보다 더 뜨거웠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성장, 물가, 금융안정의 세 갈래를 제시했다. 이를 성장·수출, 물가, 가계부채·주택, 환율의 네 지표군으로 나눠 보면 가장 선명한 신호는 성장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늘어 한은의 5월 예상치 0.2%를 0.4%포인트(p)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보다 3.6%, 1년 전보다 15.6%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올렸다.

수출의 기세도 꺾이지 않았다. 8월 1~

20일 수출은 552억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0%,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은 61.5%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260억달러로 198.8% 급증해 전체 수출의 47.2%를 차지했다. 관세청 수치로 계산하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액의 약 8%를 만들었다.

금융안정 쪽 경고등도 밝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2019조8000억원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2조2000억원, 기타대출이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8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강남·서초가 내렸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월 셋째 주 0.22% 올라 80주 연속 상승했다.

◆ 환율은 진정...물가의 '겉'과 '속'은 반대

반대쪽 추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30분 기준가는 6월 30일 1549.4원에서 이달 21일 1386.5원으로 162.9원 낮아졌다. 수입물가와 자본유출을 자극할 위험이 줄어든 만큼 연속 인상의 급박함도 달해졌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예고

기획처, 올해 10% 이상 확대 예고
증권가 예측치 816조~820조 제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대로 꾸리고 있다. 5년 전인 2022년도 본예산(607조 원) 대비로 33%, 10년 전인 2017년도 본예산(400조 원) 대비로 100%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 총지출을 2026년도 본예산인 727조9000억 원 대비 10% 넘게 늘어난 '800조+α'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슈퍼예산'의 해를 예고한 것.

이에 2027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10.6%) 수준과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727조9000억 원이다. 10.0%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지출은 800조6900억 원으로 책정된다.

기획처는 '2027 예산안'의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각 부처 등과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공언함에 따라 증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심

이 모아진다.

바라클레이즈와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내년 총지출 예측치는 816조~820조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1~12.7% 늘어난 규모다. 미래에셋증권 관측의 상단은 840조 원이다. 이 경우 증가율이 무려 15%대에 이른다.

비블레이즈는 약 816조 원으로 예상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12.1%로, 올해보다 88조1000억 원 증가한 수컷다. 미래에셋증권은 820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는데 전망 범위는 800조~840조 원이다. 중위 값인 82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본예산보다 12.7%(92조1000억 원) 증가한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 12%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진다면 18년 전의 기록을 갈아치운다. 2009년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선 확장재정을 펼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10.6%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753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내려간다. 내년 총지출이 82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8.9%에 그친다. 미래에셋증권의 전망 상단인 840조 원까지 늘어나 추경 포함 대비 증가율이 11%대의 두 자릿수를 나타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커버스토리

韓 텃밭 '반도체 부품'에 中 돌격 LG이노·삼성전기 '고부가' 승부

中 삼한그룹, 홍콩 상장 1.3조 조달
MLCC기업, 글로벌 매출 10%대로

삼성전기, 초고용량 MLCC 확대
LG이노, 전장·로봇 등 사업 확장

중국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이 범용 제품을 넘어 인공지능(AI) 서버와 차세대 반도체 기반 등 고부가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국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늘리고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부품업체도 고부가 제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부품 업체들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카메라 모듈 등 기존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FC-BGA와 유리기판 등 차세대 부품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AI 서버와 전장, 로봇 등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MLCC 업계 중국 대표기업 삼한그룹은 지난달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71억6000만홍콩달러(약 1조3000억원)를 조달하며 태국과 독일 신공장 건설에 나섰다. 풍화고교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무리하고 월 생산능력을 500억개까지 확대했다. 중국 MLCC 업체들의

글로벌 매출 비중은 2019년 약 6%에서 2024년 하반기 10% 안팎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의 투자가 AI 서버와 전장 등 고부가 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PCB·반도체 패키징기업 업체 싱켄커지는 20층 FC-BGA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소량 생산과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선난서킷은 광저우 공장에서 22층 이하 FC-BGA를 양산하고 24층 이상 제품도 개발 중이다. AI 서버용 FC-BGA는 통상 20층 이상의 고다층 구조가 요구된다.

LG이노텍의 주력인 카메라 모듈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중국 코벨전자는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진입했다. 공급사가 늘어나면서 LG이노텍 등 기존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도 확대되고 있다.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에도 중국 업체가 뛰어들었다. BOE는 2024년 투자한 유리기판 파일릿 라인을 올해 가동하고 TGV(유리관통전극), 재배선(RDL), 범프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각각 파일릿 라인을 구축해 AI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기술 난도가 높은 AI·전장용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초고용량·고온·고전압 MLCC 공급을 확대하고 글

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 등 10여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 AI 가속기와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용 FC-BGA 공급도 늘리고 있다. 올해 2분기 패키징 매출은 77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중심의 사업을 전장과 로봇, 반도체 기판으로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용 비전센싱 모듈 등 광학 기술을 활용한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고다층 FC-BGA 등 고부가 제품의 양산 경험을 쌓고 있지만 글로벌 고객사 공급을 위해서는 수출과 신뢰성 확보, 고객사 인증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고객사 공급 경험과 고부가 제품 기술력을 앞세워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 유지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고부가 제품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AI 서버와 전장, 로봇 등 기술 난도가 높은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고객사 인증과 양산 경험을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여야, 26일 '용산공원 캠프킴' 처리할까...공감대 속에도 대치 /사진 뉴시스
▲60명 기소·줄이침...종합특검, 명암 속 마침표

▲한 총리 "세제 개편·부동산 문제, 국민생활 파급력 높아...정교하게 접근해야"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속죄 유일한 길"

▲현대차 노사 오늘 교섭 재개..."부분 파업 유보"
▲軍 "北,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임박 징후는 미식별"